

경주금속노동조합 출범

산별노조 건설 추세에 발맞춰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업의 중소규모노조들이 통합하여 '경주금속노조'를 출범시켰다.

박용규

금속산업연맹 대구경북본부 교육선전부장

지난 4월 24일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조직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받으며 경주금속노조가 결성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제정·예산확정·초대임원을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노조통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기존의 기업별노조를 뛰어넘어 단일노조로 통합하는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진통,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격론과 우여곡절, 지리한 논쟁을

하면서 한 때 난파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과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기업별노조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육동자 '경주금속노동조합'은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경주금속노동조합이 출범하기까지 많은 동지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의 오세용 실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경주지역 노조통합에 필

요한 여러 가지 실무 준비를 전담하면서 산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성 배경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노조통합은 자동차부품업체라는 단일업종과 지역 동질성에 자리잡고 있으며, 구조조정 공동대응, 산별노조 건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노동조합 활동의 지평 확대의 필요성에서 이뤄졌다. 통합사업은 완성차업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에 이어 부품산업에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어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대표자들이 공감하면서 본격 세기되었다.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현대정공을 흡수합병하였고,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흡수합병한데 이어 삼성자동차와 함께 해외매각 방침이 발표되었다. 또한 완성차업계는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면서 부품업체의 모듈화·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고 글로벌소싱(해외조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의 핵심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100여 개에 이르는 자동차 핵심부품업체가 해외자본에 넘어간 상태였다.

경주지역만 해도 민주노총 소속 11개 자동차부품노조 가운데 이미 3개(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즈코리아, 한국FCI, 한국펠저)가 해외자본에 넘어갔고, 1개(인회

산업)는 합작, 1개(정일산업)는 매각·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부품업체 노동자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해외자본의 노사관계·고용문제 등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개별노조의 대응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여 노조 통합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통합 추진경과

노조통합 문제는 1998년 12월 29일 금속산업연맹 경주지역 임원진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98년 투쟁을 평가하고 99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단위노조 임원진 수련회에서 토론 주제로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 단일노조(노조통합)건설에 대하여”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노조통합 사업에 대해 “위원장을끼리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단일노조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교섭권 위임문제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9년 3월, 99년 투쟁준비를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82.1%가 넘는 조합원들이 노조통합에 찬성하였고, 이로써 노조통합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표1] 참조).

이를 토대로 1999년 4월말 ‘경주지역 자동차부품 구조조정 대응준비팀’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열고 노조통합사업에 필요한 세부 준비를 다그쳤다. 그 해 9월에는 「최근 3년간(‘97~‘99) 임단투 현황」, 「조합활동 임금 단협 실태

[표1] 노조통합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	응답자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잘 모르겠다.
광진상공	109	37.6	43.1	5.5	0.0	13.8
동진금속	54	16.7	42.6	3.7	0.0	37.0
동진이공	54	61.1	27.8	1.9	0.0	9.3
만도기계경주	367	44.1	47.7	2.5	0.8	4.9
아풀로산업	165	42.4	40.6	6.1	3.6	7.3
인회산업	83	33.7	34.9	3.6	1.2	26.5
일진산업	113	58.4	36.3	0.9	0.9	3.5
정일산업	61	34.4	44.3	3.3	0.0	18.0
한국FCI	30	26.7	53.3	0.0	0.0	20.0
계·평균	1,036명	42.3%	42.5%	3.3%	1.1%	10.9%
	(438명)	(440명)	(34명)	(11명)	(113명)	

[표2] 4월 11일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 결과

	총원	조직형태 변경 결의				
		투표인원	찬성	반대	무효(기권)	비고
광진상공	238	195	165(84.6%)	30		
동진이공	134	113	95(84.1%)	15(13.3%)	3	
아풀로산업	459	405	269(66.4%)	135(33.3%)	1	
인회산업	180	167	152(91%)	15(9%)	3	
일진산업	152	137	115(84%)	22(16%)	0	
한국FCI	93	76	70(92%)	4(5.2%)	2	
신야전기	76	75	58(77.3%)	17		
한국철저	21	16	14(87.5%)	2		4/8총회

비교], 「단체협약 비교자료집」, 「규약 비교자료집」을 만들어 노조통합에 필요한 기초조사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이로써 노조통합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1월 5일 8개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경주지구 13차 대표자회의는 대응 준비팀을 노조통합 기획팀으로 확대 강화하고, 기획팀 회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열기로 결정했다. 노조통합추진위 기획팀에는 3개의 교육선전소위, 조사통계소위, 조직소위를 두었고, 각 소위의 역할

을 분담하여 규약안 마련 및 간부간담회, 임직급체계 분석 프로젝트 사업,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월 13일 경주지구의 모든 간부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현황과 대책, 연맹·경주지구 2000년 투쟁 계획, 노조통합·운영사례 교육 따위를 토론했고, 2월 25일 기획팀 전체 수련회에서 「통합노조 규약 1차(안)」을 치열하게 토론했다.

3월 18일에는 「노조통합과 2000년 투

생승리를 위한 경주지구 합동간부 토론회'를 열어 통합노조 규약 2차 초안을 열띠게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조직대상, 조합비, 적립금, 임원·대의원 임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3월 말까지 마치 기로 했던 노조통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열린 4월 6일 경주지구 21차 대표자회의에서 '4월 11일 전체노조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침내 4월 11일 7개 노조가 일제히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표2) 참조).

창립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안'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4개 항을 추가하여 2000년 10월 금속산별노조가 결성되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표3) 참조).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경주금속노동조합의 출범은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폐거

이다. 비록 전체 조합원이 (7개 분회) 90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통합이지만, 통합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10월 금속산별노조 건설에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통합노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은 10월 금속산별노조 건설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각 노조 적립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자는 안'과 '조합원 1인당 일정액을 결의하자는 안'을 논의한 끝에 조합원 1인당 2~3만원씩의 사무실 기금을 결의, 약 2,500만원을 모아 경주시 황성동에 통합노조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금속산업연맹 산하 235개 사업장마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적립금이 있는데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 경주지구 노조통합 과정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생각만큼 순수운 과정이 아님을 아풀로산업에서의 부결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풀로산업의 경우 내용적으로 조합원 2/3가 동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한 표 차이로 부결

[표3] 조직형태변경 결의안

- ① ○○노동조합은 가장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경주금속노동조합 ○○분회'로 청한다. 단, 경주금속노조가 결성되어 힘발적 지위를 획득한 시점과 동시에 전환한다.
- ② 본 임원은 가장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경주금속노동조합 ○○분회'로 전환할 시 분회임원으로 승계된다(일전산업의 경우 분회 임원으로 승계되며 임기는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단, 그 이전에도 금속산별노조가 건설되면 그 시점까지 한다).
- ③ 통합노조 발기인대회(통합노조 창립대의원대회) 아래와 같이 현재의 대의원을 파견한다. 통합발기인대회 파견 대의원 명단 :
- ④ ○○노동조합은 전국적 금속산별노조가 결성되면 경주금속노동조합을 통해 참여한다.

된 것은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과정이 치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경주지역에서 아풀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본다면 경주금속노조의 출범은 반쪽짜리 출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집단교섭, 공동투쟁의 성과를 통해 아풀로산업과의 재통합을 결의하겠지만 규모있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주금속노동조합의 출범은 기업별 장벽과 의식을 넘어 노동자계급 단결의 토대를 열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87년 민중항쟁을 통해 봇물처럼 세워졌던 민주노조, 그러나 13년을 맞게된 지금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단계로의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한 이념적 가치를 세워내고, 기업별의식을 뛰어넘어 계급 단결을 이루어 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다.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의식을 뛰어넘어 계급 단결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아직까지 경주금속노조가 조합비의 집중, 초대 지도부의 지도력, 집행력(분회의 상집기능 유지)에서 한계를 갖지만, 기업별 장벽을 뛰어넘어 계급 단결을 이룰 때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제 경주금속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극복하고 산별체계의 전형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떠맡았다. 간선 임원진, 재정과 사람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관행이 온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통합노조에 걸맞는 산별 수준의 실천, 일상활동의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물론 기업별노조를 뛰어넘어 단일노조를 가능케 했던 조합원들의 창조력과 지혜는 이 과제도 능히 극복해 가리라 믿는다. ♦♦♦